CONDERI

CONDERI DAILY INSIGHT | 일일 인사이트 리포트 | 대외 공개판

규제와 신뢰의 주간: 블루웨이브 충격, AI 보안 모델, 증명되는 학습 효과 — 5대 동향 분석

The Week of Regulation and Trust: Blue-Wave Shock, AI Security Models, and Proven Learning Outcomes

본 리포트의 독자 및 활용 가이드

이 리포트는 2026년 11월 3일부터 6일까지 발생한 글로벌 시장의 핵심 변화를 창업가, 경영진, 엔지니어, 투자자, HR 담당자가 함께 읽고 공유할 수 있도록 구조화한 일일 산업 인사이트입니다. 모든 수치는 공개된 공식 출처(정부 통계, 학술 문헌, 시장조사기관, 주요 언론 보도)로 검증했으며, 추정치와 확정 실적을 명확히 구분해 표기했습니다. 글보다 도표와 그래프가 먼저 말하고, 텍스트는 그 해설을 돕습니다.

문서 정보 / Document Information

문서등록번호 Document No.	CONDERI-IR-2026-11-06
발행일자 Published	2026. 11. 06. (금) Friday
권호 Volume	VOL. 2026-11-06
분석기간 Coverage	2026. 11. 03 ~ 11. 06 (직전 3일 전수)
배포구분 Distribution	Public | 일반공개
발행기관 Publisher	CONDERI AI산업전략연구실
조사·집필 Research	AI산업전략연구실

종합 요약: 이번 주 시장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Executive Summary (KR) | 2026년 11월 3일~6일 글로벌 동향 압축 분석

코스피 단일일 급락 (11-05)

−5.28%

블루웨이브 쇼크·사이드카 발동
삼성전자 −7.57%·SK하이닉스 −9.46% (연합뉴스)

AI 보안 모델 벤치마크 (11-05)

ExploitGym 48.5%

GPT-6 Cyber, 전작 32.1% 대비 +16.4%p
Linux 권한상승 948건·Firefox 신규 취약점 81건 발견 (OpenAI)

AI 튜터 학습효과 (OECD, 11-04)

효과크기 d = 0.63

미 대학 물리학 RCT(n=316), 대면 수업 대비
유의미하게 큰 학습 성장 — OECD "대규모 효과" 분류

한눈 요약

이번 주(11월 3일~6일) 글로벌 시장은 **"규제와 신뢰"**라는 두 축으로 수렴했다.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는 블루웨이브가 현실화하자, AI 데이터센터 규제 강화 우려가 반도체 밸류체인을 일제히 압박해 코스피가 −5.28% 폭락하며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했다(11-05). 반면 기술 진영은 신뢰 계층의 경쟁에 나섰다 — OpenAI가 사이버보안 특화 모델 GPT-6 Cyber를 공개해 ExploitGym에서 48.5%를 기록했고, Anthropic은 zkSNARK 기반 검증 가능 추론(FlashProve)을 오픈소스로 공개했다. 노동시장은 "AI 재배치의 역설"이 뚜렷해졌다(SHL: 젊은층 24%가 AI 대체 후 복직 경험, LSE: AI 지원서 홍수 속 중소기업이 태도·적응력 같은 인간 고유 역량을 오히려 더 요구). 교육에서는 OECD가 AI 튜터의 학습효과(ES 0.63)를 대규모로 분류하며 "설계된 AI 교육"의 실증 라인이 확정됐다.

본 리포트의 구성 (장절 체계)

I. **주간 브리핑 | 직전 3일 글로벌 5대 동향 (창업 — 기술 — 경제 — 경영/HR)** p.04 ~ 07
II. **심층 분석 | 에듀테크 시장·국내 교육 현장, OECD AI 튜터 실증, 신뢰·검증 인프라** p.08 ~ 10
III. **5개년 거시 지표 비교 | 금리·환율·시장 규모 2022~2026 팩트 테이블** p.11
IV. **핵심 시사점 (Key Takeaways) 및 참고자료** p.12

Executive Summary (EN)

English abstract of the 5 cross-sector signals, Nov 3-6, 2026

The week in one line: the US midterm "blue wave" turned AI policy risk into a market event. KOSPI fell 5.28% in a single session (Samsung Electronics −7.57%, SK Hynix −9.46%) as investors repriced AI data-center regulation, while Korean 10-year yields dropped 8.1bp to 3.887% and WTI crude slid 8.3% to $88. In technology, the frontier competition shifted to the **trust layer**: OpenAI shipped GPT-6 Cyber (ExploitGym 48.5% vs 32.1% for its predecessor; 948 Linux privilege-escalation exploits and 81 previously unknown Firefox vulnerabilities uncovered), and Anthropic released FlashProve, a zkSNARK-based provable-inference system running at 110 tokens/second on a single H100. In labor markets, SHL finds 24% of younger workers have already been displaced and rehired over AI, and LSE reports SMEs now screen harder for attitude and adaptability as AI-assisted applications flood inboxes. In education, the OECD's Digital Education Outlook 2026 certifies AI tutoring at effect size 0.63 in a randomized university trial — and reports Stanford's Tutor CoPilot lifting student pass rates by 4% (9% with novice tutors) across 900 tutors and 1,800 underserved students.

Three signals that matter (details in Section IV)

01

Regulation is now a market variable

34 of 36 winning governors backed at least one data-center rule. A single election repriced the world's densest chip supply chain by ~5% in one session — AI policy risk is equity risk.

02

The trust layer went vertical

GPT-6 Cyber stayed in scope in 99.93-100% of tests; FlashProve makes inference cryptographically verifiable. Security and verifiability became the frontier's new scoreboard.

03

Proof beats claims in hiring & learning

OECD certifies AI tutoring (ES 0.63) while employers discount AI-written claims. Demonstration evidence — not credentials — is converging as the hiring and learning standar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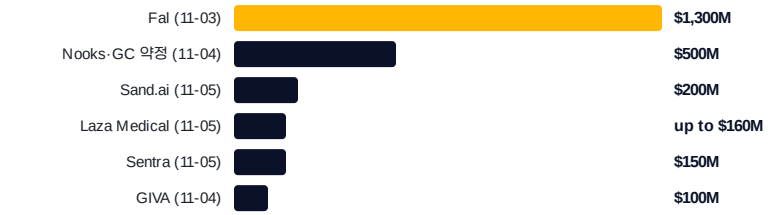
I. 주간 브리핑 | 창업 동향: 자본, 실행 계층에 머물다

Venture & Startup Trends | The week of Nov 3-5, 2026

I-1 창업 · 스타트업 STARTUP TRENDS

주요 신규 자금 조달 규모 (백만 달러)

2026. 11. 03 ~ 11. 05 발표분 | 자료: Reuters, TechCrunch, techstartups, Bloomberg



Nooks의 5억 달러는 지분 투자가 아닌 General Catalyst Customer Value Fund의 매출 연동 커밋먼트이며, Laza Medical은 최대 한도 공시임 — 확정 완료분과 구분해 표기

발표일	기업	분야	핵심 수치·참여 투자자
11-03	**Fal**	AI 추론 인프라	13억 달러 Series F, 기업가치 160억 달러 (4월 80억 대비 2배) | Bessemer 주도, Nvidia·T. Rowe Price 참여 | 직전 Series E 3.5억 달러와 합산 총 16.5억 달러
11-04	**Nooks**	AI 영업 자동화	General Catalyst Customer Value Fund로부터 5억 달러 커밋먼트 확보 — 지분 매각 아닌 매출 리턴 제어 방식 (CEO Dan Lee)
11-05	**Sand.ai**	생성형 비디오 모델	2억 달러 Series A+ (Comerstone·왕수 공동 주도), 2026년 누적 조달 약 3억 달러 · 유니콘 편입 보도
11-05	**Sentra**	AI 에이전트 데이터 보안	1.5억 달러 Series C, Capital One Ventures 주도 · 누적 2.6억 달러 — "자율 AI 에이전트로부터 기업 데이터 보호" 포지셔닝
11-05	**기타**	반도체·핀테크·바이오	방신탁자(6억 위안 이상)·링촨테크(10억 위안) 반도체 라운드, Pliant 8,000만 달러, bit.bio 2,500만 달러, Laza Medical 최대 1.6억 달러(GE HealthCare 주도)

해석 이번 주 자본은 여전히 "실행 계층"에 집중됐다 — 추론 인프라(Fal), 영업 운영(Nooks), 에이전트 보안(Sentra). 주목할 변화는 자금의 성격이다: 전통적 지분 라운드를 넣어 매출 연동 커밋먼트(Nooks)와 시리즈 이벤트 병합 (Fal의 E+F 동시 공개) 같은 유연한 구조가 대형 딜의 표준이 되고 있다. (수치는 발표 기준이며 조건부 완료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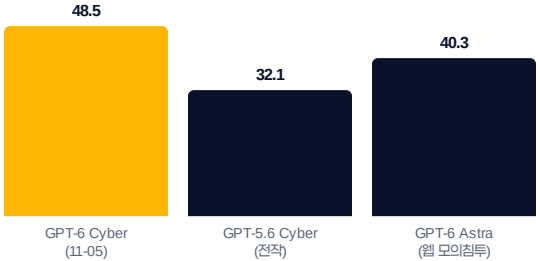
II. 주간 브리핑 | 기술 동향: 프론티어, 신뢰의 계층으로 이동

Technology Trends | Cybersecurity models and provable inference redefine the frontier

I-2 기술 · AI/반도체 TECHNOLOGY TRENDS

ExploitGym: 지정 취약점 악용 성공률 (%)

OpenAI 시스템 카드 (2026-11-05) | 웹 모의침투 평가는 GPT-6 Astra와 비교



범위 준수: 배포 프롬프트 없이 99.93% (전작 94.49%), 프롬프트 적용 시 100% — Preparedness Framework 사이버보안 등급 "Critical" (High에서 상향)

발표일	주제	핵심 수치·내용
11-05	**OpenAI GPT-6 Cyber**	보안 특화 모델	ExploitGym 48.5% (전작 32.1%)	Linux 권한상승 익스플로잇 948건·Firefox 미공개 고심각 취약점 81건 발견, Mozilla 패치 반영	Daybreak Red 승인 고객 우선 제공 (TechCrunch: "그것으로 충분한가" 논쟁)
11-02	**Anthropic FlashProve**	검증 가능 추론	zkSNARK로 "특정 커밋된 모델이 응답했음"을 암호학적으로 증명	단일 H100에서 110토큰/초, 1,024토큰당 증명 18.78MB·CPU 검증 17초	Llama 4 Maverick 4bit 기준, Apache 2.0 공개
11-05	**Google Gemini Omni 1.2 Flash**	비디오 생성	네이티브 15초 클립 (기존 10초), 멀티턴 대화형 편집, 가격 30% 인하 ($0.07/초, 720p)	Gemini API·Google Cloud 즉시 GA
11-05	**OpenAI Images 2.6**	이미지 생성	속도 50% 향상, 네이티브 GIF·SVG 출력	단 저·중품질 토큰 소비 증가로 1024px 저품질 약 $0.025 (기존 $0.006) — 워크로드별 벤치마크 필요
11-05	**Google Gemma 4 26B-A4B**	경량 오픈모델	원본 가중치 약 85% 프루닝으로 추론 효율 최적화 — "대형 모델의 소형화" 트렌드 가속 (Neural Wire)

해석 프론티어 경쟁의 채점표가 바뀌었다. 벤치마크 점수 경쟁에서 "무엇을 증명할 수 있는가"의 경쟁으로 — GPT-6 Cyber는 공격적 보안 작업의 범위 준수를, FlashProve는 추론 결과 자체의 암호학적 검증을 판에 올렸다. 기업 도입 관점에서는 모델 선택보다 감사(audit) 가능성이 새로운 평가 기준이 된다. (모델 우위 주장은 독립 검증 전 확정 문구 아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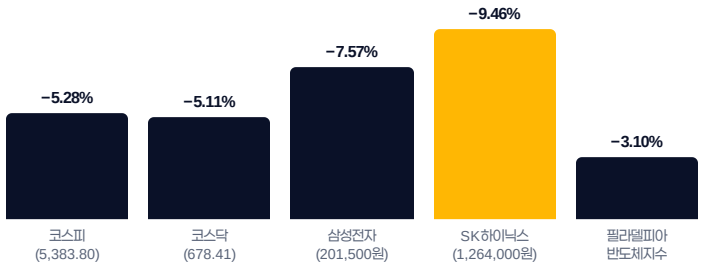
III. 주간 브리핑 | 경제 동향: 블루웨이브 쇼크, 두 개의 가격

Economy & Macro Trends | One election, two prices: equities repriced AI, bonds repriced the Fed

I-3 거시 경제 MACRO & ECONOMY

블루웨이브 쇼크: 11월 5일 단일일 하락률 (%)

미 중간선거(11-03) 민주당 압승 여파 | 자료: 연합뉴스·한국거래소 (11-05 종가)



양 시장 매도 사이드카 발동, 외국인 유가증권시장 3조4천억 원 순매도. 승리 주지사 36명 중 34명이 데이터센터 규제 1건 이상 찬성 (The Information 집계)

기준일	지표	핵심 수치
11-05	원/달러 환율 (주간 마감)	1,342.1원 (+0.6원) | 달러·금리 하락에도 외국인 증시 투매로 원화 강세 제한
11-05	국고채 10년물 금리	연 3.887% (−8.1bp), 5월 이후 3.8%대 진입 | 3년물 3.669% (−4.5bp)·10-3년 격차 21.8bp로 2025년 4월 이후 최저
11-04	국제유가 WTI	배럴당 88.12달러 (−8.3%) | 미-이란 종전 기대에 유가 급락, 인플레이션 압력 완화
11-04	미 국채 10년물	4.88%대 (전일 4.95%에서 −7.7bp) | 의회 견제로 추가 감세·재정지출 확대에 제동 기대 반영
11-05	시장 해석 (DB증권 외)	달러 약세·원화 강세 지속 시 연내 원/달러 1,320원 기술적 바닥 전망 | 한국은행 통화정책방향 결정(11-26) 전 변동성 장세 예상

해석 같은 사건이 두 개의 가격을 만들었다. 증시는 "AI 규제 → 반도체 수요 둔화"를 먼저 반영해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급락했지만, 채권·유가는 "격제 → 금리 인하·인플레 완화"를 반영해 일제 강세였다. 스타트업 자금조달 관점에서는 단기 변동성 속에도 금리 하락 기대가 성장주 밸류에이션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작동한다. F4 시장상황점검회의가 소집된 만큼 정책 안정화 수요도 커진다.

IV. 주간 브리핑 | 경영·HR 동향: AI 리바운드와 4 As

Management & HR Trends | AI displacement, rehiring, and the human skills AI cannot screen for

I-4 경영 · HR MANAGEMENT & HR

"AI 리바운드" 시대의 노동자 조건 (%)

SHL「Talent Mobility at Work 2026」(미·영 노동자 2,000명+, 11-04 발간)



젊은층의 24%가 실제로 AI 대체 후 복직(reebounding)을 경험, 36%는 지인의 사례를 관측. 8%는 어떤 조건에도 복직 거부

발표일	주제	핵심 수치
11-05	**LSE「4 As」연구** | 중소기업 채용	AI 지원서 홍수 속 중소기업 30곳 인터뷰: 적응력·학습의지·책임감·태도("4 As")가 자격증보다 중요 — 25곳이 책임감, 24곳이 태도를 언급. 그러나 대부분 평가 기준 없이 "바이브 체크"에 의존
11-02	**WTW Q3 인재 인텔리전스 리포트**	에이전틱·생성형 AI 및 AI 거버넌스 스킬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기술 요구 | 단 글로벌 최다 수요 직무는 여전히 CS 담당자 — "AI는 인간 역량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위치를 바꾼다"
11-04	**Careerminds·Censuswide** | AI 재배치 격차	HR 전문가 92%가 기존 인력의 AI 역할 재교육 가능성 확신 | 실제로는 외부 채용 51% vs 내부 재배치 42% | 43%가 "누구를 재교육할지" 가시성 부족
11-04	**구조조정 패턴** | 선제적 감원	전문가 지적: 재정 절감이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감원하는 첫 사례들 — 직무기술서 갱신 지연이 "맥락적 성과(50%)"를 간과한 채 감원으로 이어질 위험

해석 AI 스크리닝이 보편화된 시장에서 역설이 생긴다: 기업은 AI가 만든 과장된 지원서를 걸러야 하고, 노동자는 "AI가 대체했다가 다시 데려오는" 회전의 중심에 있다. 양쪽의 해법이 같은 곳에서 나온다 — 검증 가능한 실무 수행 증거와 그것을 보는 조직의 평가 설계. 채용의 병목은 스펙이 아니라 증명 체계다.

심층 분석 1 | OECD가 인정한 AI 튜터의 효과

Deep Dive 1 | OECD Digital Education Outlook 2026: effect sizes, Tutor CoPilot, institutional adoption

II-1 에듀테크 · 실증 EDTECH EVIDENCE

학습 개입의 효과크기 비교 (0.8 이상은 대규모)

OECD Digital Education Outlook 2026 (11-04 공개) 및 문헌 메타분석 종합



OECD 인헬리전스: 대면 액티브 러닝 수업 대비 AI 튜터군이 더 짧은 시간에 더 큰 학습 성장·높은 동기·몰입 — "설계가 학습과학에 기반할 때"

연구·프로그램	핵심 수치
Tutor CoPilot (Stanford, OECD 인용)	튜터 900명·소외 학생 1,800명에게 배치 → 학생 합격률 평균 +4% | 저경력 튜터군 +9%, 저평가 튜터군 +7% — "경험 격차"를 AI가 메꾸는 구조
적용의 조건 (OECD)	정답을 주는 범용 챗봇과 개념 설명·피드백·생산적 사고를 유도하는 교육용 AI는 다름 — 효과는 기술 수준이 아니라 교수설계에 결정됨. 단일 과목·단일 모형의 결과로 일반화는 유보
대학의 제도적 도입	UT Austin, ChatGPT Edu·Claude Edu 2개 계약에 연간 약 420만 달러 (11-04 공개) | Stanford, 2027년 겨울부터 전공 재설계에 최대 75만 달러 그랜트

해석 교육 AI 논쟁의 문법이 바뀌었다. "학생이 챗봇으로 숙제한다"는 소비 프레임에서 "설계된 AI 튜터가 학습 성장을 낸다"는 실증 프레임으로. OECD가 RCT 효과크기 0.63을 대규모로 분류한 것은 교육기관의 AI 도입 논의를 철학에서 투자 대비 효과(ROI) 논의로 이동시킬 기준점이다. 다음 쟁점은 효과의 크기가 아니라 재현 조건이다.

심층 분석 2 | 국내·글로벌 에듀테크: 교실로 들어온 AI

Deep Dive 2 | Domestic and global edtech: physical-AI coding, guided learning, and teacher-made AI tools

II-2 에듀테크 · 현장 EDTECH IN CLASSROOMS

이번 주 에듀테크 자금·투자 흐름 (백만 달러)

2026. 11. 03 ~ 11. 05 발표분 | 자료: Google.org, TNW, dailyaibrief



Mindmax는 Memrise 창업팀의 시험 대비 AI 튜터로 Concept Ventures 주도 프리시드 — "대화로 배우는" 학습이 신규 창업의 기본형이 되고 있음

글로벌 에듀테크 시장 전망 (참고 비교)

2024년 1,635억 달러 → 2030년 3,480억 달러 전망 (GVR 2024 기준 13.3% CAGR 추세 보간) | AI in Education은 2025년 83억 → 2033년 572억 달러 (GVR 2026) — 본체보다 2배 가까이 빠른 성장

발표일	주제	핵심 내용
11-05	**메이킷올 「직코 그라운드」**	국내 피지컬 AI 코딩	웹 브라우저에서 마이크로비트·ESP32 등 보드 5종을 제어하는 코딩 플랫폼 출시 — 교구 없이 가상 시뮬레이터로 실습, 현재 무료. 2022 개정 교육과정 정보교육 시간(초 34·중 68시간) 확대에 맞춘 공급
11-04	**Google Classroom 가이디드 러닝**	Gemini 지원 전 언어로 글로벌 배포 — 과제에 단계별 AI 안내 세션 내장, 교사가 출처를 커리큘럼으로 지정하고 학생 대화 요약·전문 열람 가능 (LearnLM 기반)
11-03	**Google.org 교육 AI 펀딩**	CUNY·Fab AI(Gates Foundation 협업)·Krause Center 등 5개 기관에 950만 달러 이상 — 교사 수업 설계·초등 읽기 지원 오픈모델·학습 표준 인프라
11-05	**국내 대학·교육청 AI 협력**	덕성여대·서울여대·성신여대×네이버 커넥트재단 AI 인재 양성 MOU (11-05)	전남광주교육청, 교사 제작 AI 수업도구 47작품 중 16개 선정·일반 학급 보급

해석 에듀테크의 성장 무게중심이 "콘텐츠 전달"에서 "역량의 증명과 교수 설계"로 이동하고 있다. 국내 현장은 교구 격차를 웹·시뮬레이터로 해소하는 방향(직코 그라운드)이고, 글로벌 빅테크는 커리큘럼 안으로 AI를 내장하는 방향(Classroom 가이디드 러닝)이다. 공통 분모는 교사의 역할이 정보 전달자에서 설계자·검증자로 바뀐다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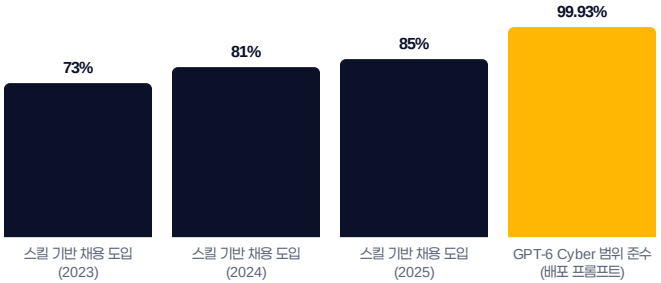
심층 분석 3 | 신뢰·검증 인프라: 선언에서 증명으로

Deep Dive 3 | The trust layer: verifiable inference, aligned cyber agents, and tamper-evident credentials

II-3 신뢰 · 검증 TRUST & VERIFICATION

"증명"으로 수렴하는 지표들

TestGorilla(2025, 표본 1,084건) · OpenAI 시스템 카드(11-05)



채용 최종 단계의 최우선 정보는 9개 스킬 정보 중 수행 증거 (Demonstration Evidence) 1위 — Aspen Institute·UpSkill America (2025)

신뢰 계층의 구성 요소	핵심 수치·의미
암호학적 추론 검증 | Anthropic FlashProve (11-02)	zkSNARK로 "커밋된 모델이 응답했다"를 증명 — 단일 H100에서 110토큰/초, 검증은 GPU 불요·CPU 17초. 페이싱·변조 탐지·텍스트 출처·모델 승인 4대 활용. 단, 그리디 디코딩·1,024토큰 한계 등 전제 명시 필요
보안 작업의 정렬(alignment) | OpenAI GPT-6 Cyber (11-05)	범위 외 서비스 악용 회피 99.93% (프롬프트 적용 시 100%) — 강력한 모델의 통제 가능성 자체가 출시 심사·고객 승인 요건(Daybreak)이 됨
무결성 표준 | W3C Verifiable Credentials 2.0	2025-05 권고 확정, 온체인 해시 검증 자격증 누적 20.8만 건 (ITCILO, 2025-10) — "누가, 언제, 진짜로 무엇을 만들었는가"의 표준 기술 해법
채용 현장의 수요 | 스킬 증거	AI 지원서 과장 77% 관측·신원위조 40% 증가 속에서 수행 증거가 최종 채용 1순위 정보로 부상 (전체의 96%가 스킬 주장-실제 역량 불일치 경험)

해석 이번 주의 기술 발표는 하나의 방향을 가리킨다: AI 시대의 신뢰는 선언이 아니라 증명으로 만들어진다. 모델 출력의 암호학적 검증(FlashProve), 공격적 작업의 범위 통제(GPT-6 Cyber), 학습·활동 기록의 무결성(W3C VC 2.0)이 각각 다른 계층에서 같은 문제를 푼다. 교육과 채용을 잇는 인프라는 이 세 계층의 교차점에 있다.

5개년 거시 지표 비교 (2022~2026) 및 팩트 테이블

Five-Year Macro Comparison | Rates, FX and market series with fact tables

III 거시 지표 비교 MACRO COMPARISON

5개년 거시 지표 비교 (2022~2026)

연준·한은은 연중 최신 기준, 환율은 한국은행 ECOS 매매기준율 연평균 (2026년은 10/1까지 집계)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연준 상한 (%)	4.50	5.50	4.50	3.75	4.00
한은 기준금리 (%)	3.25	3.50	3.00	2.50	3.00
원/달러 연평균 (원)	1,291.9	1,305.4	1,364.0	1,422.2	1,462.7
글로벌 에듀테크 (십억$)	163.5	187	212	240E	348E(2030)
AI in Education (십억$)	2.21	4.9E	8.3	11.4(2026)	57.2(2033)

E는 기관 전망치 | 기관별 산정 범위가 달라 단일 시계열 병합이 아닌 참고 비교 | 에듀테크: GVR/TBRC, AI 교육: MarketsandMarkets(2024)·GVR(2026) | 11-05 종가 환율 1,342.1원, 연중 최저권

거시 지표가 에듀테크·창업 시장에 주는 신호

금리 부담이 유지되는 국면에서 투자는 "검증된 실행 레이어"(인프라·운영)로 집중됐다. 고금리가 지속될수록 성장주의 실적 증명 부담은 커지고, 교육·HR 시장의 지출은 "효과를 증명할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재배분된다. 블루웨이브 이후 금리 하락 기대가 형성되면 1차 시장의 위험 선호도 부분 회복이 가능하나, AI 규제 리스크 프리미엄이 새로 붙는 만큼 방어적 실증 데이터를 갖춘 기업이 상대적 우위를 갖는다. 공교육·기업 교육 예산의 실증 데이터 요구는 앞으로 더 강해질 것이다.

11월 26일 한국은행 통화정책방향 결정 — 시장 무게중심

10월 금통위에서 완화적 태도 관측(KB증권: 최종 기준금리 상향 국면 마무리) 속에 증시 부진이 전망치 하향 요인으로 반영되기 시작. 환율은 외국인 수급에 따른 단기 변동성에도 강세 기조 유지 전망

핵심 시사점 (Key Takeaways) 및 참고자료

Section IV | Three takeaways for founders, executives, engineers, investors and HR leaders

TAKEAWAY 01

AI 정책 리스크는 이제 시장 변수다

중간선거 단일 이벤트가 코스피 −5.28%·삼성전자 −7.57%를 만들었다. 36명 중 34명의 승리 주지사가 데이터센터 규제 찬성으로 확인된 만큼, 창업가와 투자자는 규제 노출도를 밸류에이션·입지 전략의 기본 변수로 다루어야 한다.

TAKEAWAY 02

프론티어의 채점표가 "증명"으로 바뀌었다

GPT-6 Cyber(ExploitGym 48.5%·범위 준수 99.93~100%)와 FlashProve(단일 H100에서 110토큰/초 검증 가능 추론)는 성능 경쟁을 신뢰 경쟁으로 전환했다. 기업 도입의 평가 기준은 벤치마크 점수에서 감사 가능성으로 이동한다.

TAKEAWAY 03

교육과 채용은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 — 수행 증거

OECD가 설계된 AI 튜터의 효과크기를 0.63으로 인증한 동일한 주간에, 채용 시장은 AI 과장 지원서 속에서 수행 증거를 1순위로 올렸다. 학습과 노동 모두의 공통 화폐는 "검증된 실무 수행 기록"이며, 이를 만드는 인프라가 신규 시장이 된다.

주요 참고자료 (주력 데이터: 2026-11-03 ~ 11-06 공개분 | 추세 인용: 2021~2026)

· OpenAI GPT-6 Cyber 발표·시스템 카드 (11-05) | Anthropic FlashProve 기술 리포트·코드 (11-02, Apache 2.0) | Google Gemini Omni 1.2 Flash·Gemma 4 프루닝 (11-05) | OpenAI Images 2.6 (11-05)
· 연합뉴스·연합인포맥스·한국일보 블루웨이브 쇼크 종합 (11-05): 코스피·코스닥·환율·국고채·유가 | 한국거래소·금융투자협회 채권 통계 | The Information 데이터센터 규제 집계
· SHL「Talent Mobility at Work 2026」(11-04) | WTW Q3 2026 Talent Intelligence Report (11-02) | Careerminds·Censuswide (11-04) | LSE「4 As」연구 (11-05)
· OECD Digital Education Outlook 2026 (11-04): AI 튜터 RCT·Tutor CoPilot | Google.org 교육 AI 펀딩 (11-03) | Google Classroom 가이디드 러닝 (11-04) | 플래텀 메이킷올 직코 그라운드 (11-05) | 덕성·서울여·성신여대×네이버 MOU (11-05)
· Reuters·TechCrunch·techstartups·Bloomberg 라운드 보도 (11-03~05) | TestGorilla 2025·Aspen Institute (2025) | W3C Verifiable Credentials 2.0 (2025-05) | 한국은행 ECOS